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백승영[○], 선국진^{*}

[○]송원대학교 언어재활심리학과

^{*}송원대학교 언어재활심리학과

e-mail:bsy-music@hanmail.net[○], chosun0691@hanmail.net^{*}

A Study on the Emotional/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aek Seung Young[○], Seon Kuk Jin^{*}

[○]Dept. of Language Rehabilitation Psychological, SongWon University

^{*}Dept. of Language Rehabilitation Psychological, SongWon University

● 요약 ●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심리적 요인들과 그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 정서·행동으로서의 내재화와 외현화 그리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변수들만의 관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다문화가정 아동(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정서행동장애(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학교생활적응(Adjustment of School Life)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아동은 36,706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27,285명이고 중학교는 7,246명, 고등학교는 2,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그리고 2012년도 다문화가정 전체 아동의 수는 2011년 36,706명에서 46,95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초등학교생 33,792명, 중학생 9,647명, 고등학생 3,515명으로 초등학교생 비율이 전체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다문화가정 아동 수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주노동자의 차별 문제, 임금 및 고용문제, 인권문제 등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갈등과 부적응 문제 등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로 간주되어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들 자녀들의 교육 및 언어, 부적응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미비한 상태이다.[1] 따라서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서로 다른 인종과 국적을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자아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한다. 둘째, 언어능력 부족에서 오는 부모-자식 혹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자유롭게 못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대인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극적인 아동으로 자라게 할 우려가 있다. 셋째,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겪는다. 언어발달 지연과 읽기 기술의 부재는 곧바로 학습결손으로 이어진다. 넷째, 부모의 두 개의 언어와 문화, 행동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경험한다. 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이중 언어, 양육방식의 차이, 양육정보의 부족 등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아 주거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다문화가정은 농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 교육환경이 적합하지 못하고 교육비용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섯째,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원만한

또래관계기술 부재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외모나 말투·말씨의 차이, 학습부진 등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미숙한 언어능력으로 인한 부모의 협소한 인간관계는 아동이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2]

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다양하고 심각하다(김기탁·박민서, 2009: 101-102).

첫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일반 한국인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학업에 있어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들의 부모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낮고 학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외국인임으로 인해 태생부터 외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성장하면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어머니가 외국인임으로 인하여 어렸을 적에 습득하게 되는 언어능력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언어능력의 차이는 학교생활의 적응이나 학습능력부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어머니인 외국인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입국하여 언어와 문화적 적응이 덜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한국어를 도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이 일반 가정의 어머니와는 다를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머니를 통해 우리말 배우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형성과정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정체성 형성에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아동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두 나라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주변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언어능력의 부족과 정체성 형성의 혼란은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3]

3.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장애(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에 대한 그동안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국가 간에 그리고 학자 간에 시각의 차이에 따라 통일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정의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

법적인 차원에서 정서·행동의 개념을 살펴 보면, 먼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200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행동장애는 다음과 같다.

- ① 정서장애라는 용어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적인 수행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음의 특성들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 한다.
- A. 지적·감각적 또는 건강상의 요인으로 규명될 수 없는 학습무능력

- B. 또래 및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 C.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
 - D.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
 - E. 개인적 또는 학교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
- ② 이 용어는 ①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교육수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기타 품행장애나 적응장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장애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가. 지적·감각·작·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다. 일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라. 전반적이거나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선행연구의 고찰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을 밝히고 학교생활적응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안은미, 2006; 정현영, 2006; 양순미, 2007; 이영주, 2008; 이영주, 2008; 박순희, 2009; 고유미, 2009). 이들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 사는 것이 학교생활 적응정도가 높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흥미도가 높으며, 나아가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를 높게 자각할수록 학교생활 적응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5][6][7][8][9][10] 이렇듯이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사회적·심리적 요인들과 그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IV. 결론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가정의 구조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응의 한계와 더불어 부부갈등이나 정서·행동, 학교적응, 또래관계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깊이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부

모의 갈등과 양육태도, 정서·행동으로서의 내재화와 외현화 그리고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변수들만의 관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 통합적 모형을 통한 변수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Sun-Hee, Park,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9, p.128, 2009.
- [2] Park, Sun-Hee, *Ibid.*, pp.129-130.
- [3] Quoted in Gi-duk, Kim, Min-seo,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aptation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Focusing on the Cheonan city and Asan ci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8 No 1, pp.101-102, 2009.
- [4] Eun-Mi, An. "Study on Factors E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iages in the Rural Areas",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5] HYun-young, Ju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xed ethnic children: focused on the marriage of korean man with asian woman",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06.
- [6] Soon-Mi, Yang.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2 No 4, 2007.
- [7] Young-Joo, Lee. "Adjustment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in Multi-Culture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3 No 1, 2008.
- [8] Young-Joo, Lee.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07.
- [9] Sun-Hee, Park, op. cit., 2009.
- [10] Yu-mi, Ko. "The factors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family of a foreign mother", Dep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9.